

# 『夾注名賢十抄詩』 夾注 引用文獻 및 典故活用 연구\*

김 은 정\*\*

## <目次>

- |                |                   |
|----------------|-------------------|
| I. 서론          | IV. 중요 典故의 내용과 의미 |
| II. 夾注 引用 文獻   | V. 결론             |
| III. 頻出 詩語와 典故 |                   |

## <국문 초록>

『夾注名賢十抄詩』는 생몰년 미상의 儒者가 고려 초에 편찬한 시선집 『十抄詩』에 고려 말의 釋 子山이 주석을 붙인 책이다. 『십초시』와 『협주』는 초기 한국 한시사의 모습을 보여주는 동시에, 10세기 무렵 동아시아의 서적 유통과 문화 수용의 양상 및 한시의 학습과 활용 양상을 드러낸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하다.

본고는 이러한 문제의식 하에 『협주명현십초시』의 협주에 인용된 문헌과 전고를 살펴보는 것을 일차적인 목표로 삼았다. 우선 협주에 인용된 문헌을 思想書, 史書, 字書·辭典·類書, 地理博物志, 小說類, 文學書 등으로 나누어 고찰하였다. 이들 문헌은 고려의 지식 유통 상황 및 동아시아 지식의 보편적 양상을 고찰하는 중요한 단서가 된다. 전통적으로 韓中日은 서적을 통해 지식과 사상을 교류해 왔는데, 10세기 무렵의 동아시아에서도 새로운 지식과 사상을 담은 다양한 문헌이 광범위하게 유통되었던 사정을 파악할 수 있는 것이

\* 이 논문은 2013년도 정부(교육부)의 재원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연구되었음.(NRF-2013S1A5A8025005)

\*\* 홍익대학교(세종) 조교수 / eunsiro@hanmail.net

다. 특히 국가가 공인한 지식체계에 포함되는 經典類와 史書類는 한시 작품을 이해하는 주석인 협주에도 빈번하게 인용되고 있다. 특히 문학서와 문학작품의 경우는 『文選』 및 여기에 수록된 작품이 압도적으로 많이 인용되고 있었다. 한국한시의 초기단계에서 『문선』이 차지하는 비중이 협주가 완성되었을 고려 말까지 지속되고 있던 사정을 보여준다고 하겠다.

한편, 협주를 붙인 시어에 대한 분석도 함께 병행하였는데, 협주에 보이는 ‘已出, 見上’ 등의 표현을 확인하여 빈출시어를 도출하였다. 그 결과 역사적인 인물로는 范蠡가 자주 언급되었고, 문인들의 행적으로는 禰衡과 謝氏 일가의 구성원의 문학적 성취를 기리는 내용이 많이 등장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입신출사의 내용을 담고 있는 시어로 ‘書劍, 折桂’가 자주 확인된다. 그런데 색채어 중에 ‘朱門’에 대한 협주는 입신출사의 공허함을 내용으로 하는 시를 인용하고 있다. 이는 협주가 시구의 내용에 대한 해설의 내용을 담기만 한 것이 아니라, 협주자의 논평까지도 포함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주제어】 『夾注名賢十抄詩』, 夾注, 引用文獻, 頻出詩語, 典故活用

## I. 서론

『十抄詩』는 생물년 미상의 儒者가 고려 초에 편찬한 시선집이다. 여기에는 中晚唐 시인 30인의 칠언율시 각 10수씩의 총 300편이 수록되어 있는데, 신라시인 崔致遠·朴仁範·崔承祐·崔匡裕의 시 40수가 포함된다. 특히 崔致遠의 시 6수, 朴仁範·崔承祐·崔匡裕의 시 30수, 중국의 佚詩 100여 편은 『십초시』에서만 확인된다. 즉 『십초시』의 자료적 가치는 동아시아적인 의미를 지닌다고 하겠다. 이런 이유로 『십초시』 수록 佚詩에 대한 연구는 국내뿐만 아니라<sup>1)</sup>, 중국과 일본의 학계에서 오히려

1) 호승희, 「『十抄詩』一考: 『全唐詩』 미수록 작품을 중심으로」, 『서지학보』 15, 한국서지학회, 1995.; 「『십초시』의 자료적 이해와 편찬체제」, 『韓國漢文學研究』 19, 한국한문학회, 1996.; 강석중, 「『십초시』의 중국시 선시 양상 일고」,

더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그 결과 일시 140여 편에 대한 기본적인 정보는 어느 정도 해명된 상태이다.<sup>2)</sup>

최근에는 일시 이외에도 『십초시』 수록 시편 내용 분석을 통해 이 책의 편찬 목적과 활용 양상을 구명하려는 노력이 있었다. 수록 시편이 주로 중만당 시기의 唱和詩인 점을 밝힌 연구<sup>3)</sup>, 學詩 텍스트로서의 『십초시』의 시대별 위상을 고찰한 연구<sup>4)</sup>, 수록 시편의 격률과 내용을 고찰한 연구<sup>5)</sup> 등이 바로 이에 해당한다. 이러한 연구들은 텍스트의 성격과 특성을 고려하여 수록된 작품을 해석해야 한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한 것이라 하겠다.

한편, 『십초시』와 함께 언급되는 『夾注名賢十抄詩』는 고려말 釋子山이 『十抄詩』 이해를 위해 주석을 붙인 책이다. 그러므로 여기에는 『십초시』가 담고 있는 정보 이외에, 고려 말 이후의 자료가 다수 수록되어 있다. 현전본은 조선초의 重刊本으로서, 협주자 子山の 序, 교정자 權擘의 跋, 그리고 李云俊의 跋이 있어서 이 책에 대한 기본적인 정보를 제공한다. 이에 의하면 협주자 子山은 『十抄詩』의 體格이 典雅하여 후진 학자들에게 유익할 것 같아 협주에 착수한다고 하였다. 한편, 1452년(단종 1)에 쓰인 권람과 이운준의 발문에 의하면, 密陽府使 李伯常이 다시 실시

『韓國漢詩研究』 11, 한국한시학회, 2003.

- 2) 牛林傑, 『韓國文獻中的『全唐詩』逸詩考』, 文史哲, 1998.; 金程宇, 「韓國本『十抄詩』中的唐人佚詩輯考」, 『瀋陽師範學院學報』 2002년 제5기 제26권, 총제 113기.; 查屏球, 「新報『全唐詩』102首」, 『文史』 2003년 1집, 총제62집.; 查屏球, 「說明」, 『夾注名賢十抄詩』, 上海古籍出版社, 2004.; 芳村弘道 著·沈慶昊 譯, 「朝鮮本『夾注名賢十抄詩』의 基礎的 考察」, 『한자한문연구』 1, 고려대학교 한자한문연구소, 2005.; 芳村弘道 著·沈慶昊 譯, 「동아시아 문학과 『十抄詩』, 『夾注名賢十抄詩』」, 『한국어문학회학술포럼』, 한어문학 국제학술포럼 제1차 국제학술대회, 2007.
- 3) 유병래, 「『십초시』에 수록된 유우석, 백거이 시 선시 양상」, 『중국어문논총』 50집, 중국어문연구회, 2011.
- 4) 임도현, 「『(夾注)名賢十抄詩』의 刊行目的과 流傳樣相」, 『중국어문학』 57, 영남중국어문학회, 2011.
- 5) 김은정, 「『十抄詩』를 통해 본 羅末麗初 한시 수용 양상」, 『한국한시연구』 20, 한국한시학회, 2012.

되는 進士科에 대비하기 위해 이 책을 重刊하기로 하고, 그 교정을 權擘이 맡게 되었다고 하였다. 重刊의 저본은 1337년 안동부에서 간행한 것이라 밝히기도 하였다.

『십초시』와 『협주명현십초시』는 ①羅末을 포함한 中晚唐 시인의 작품, ②麗初 『십초시』 편찬, ③麗末 『협주명현십초시』 완성, ④鮮初 『협주명현십초시』 重刊의 과정을 거쳐 전승된 것이다. 이러한 사실을 해석하면, 이 책이 ①문학사적으로 유의미한 작품이, 한국한시사의 시기별로 ②특별한 계기에 선발되고, ③주석이 덧붙여지고, ④重刊되었다고 할 수 있다. 즉 이 책의 전승은 한국한시의 500여년 성과가 집적된 결과라 하겠으며, 당연히 그 영향 또한 컸다고 할 수 있다.

특히 『협주명현십초시』의 협주는 매우 학술적이며 다양한 문헌을 인용하고 있는데, 지리·전기·소설·잡록·시화 등 다방면의 일실 서적을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자체가 문헌적 가치가 높다. 예를 들어 ‘협주’를 통해 『十道志』와 같은 일실된 중만당 연간의 典籍을 확인할 수 있기도 하며<sup>6)</sup>, 여기에 수록된 ‘梁祝고사’로써 소설 「양산백전」의 형성 경로 및 시기를 추정할 수 있기도 하다.<sup>7)</sup> 협주에서 확보된 자료가 새로운 사실과 논의를 이끌어낸 것이다.

그런데 ‘협주’는 본래 『십초시』 수록 시편을 이해하기 위한 주석이다. 그런 점에서 그간의 『협주명현십초시』에 대한 관심은 부차적인 것일 수도 있다. 이러한 점을 지적하고 신라 시인의 작품 40수에 한정하여 협주의 성격을 구명하는 한편, 이를 통해 신라 한시를 다시 읽고자 시도가 있었다.<sup>8)</sup> 협주에 대한 문학적 연구가 전무한 상태에서 이루어진 이 연

6) 楊爲剛, 『『十道志』佚文輯考及相關問題研究』, 『역사와 세계』 40, 효원사학회, 2011.

7) 김수연, 「<양축>설화의 국내유입과 <양산백전>에 나타난 소설화 양상」, 『古小說研究』 29, 한국고소설학회, 2010.; 김우석, 「梁祝 이야기에 대한 연구 1 - 전설과 역사의 사이에서」, 『中國文學』 52, 한국중국어문학회, 2007.

8) 김은정, 『『夾注名賢十抄詩』 夾注 연구 - 新羅한시를 중심으로』, 『韓國漢文學研究』 50, 한국한문학회, 2012.

구는 비록 소략하기는 하지만 실증적이고도 주제 구현적 협주 태도를 밝혔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으며, 협주 내용 전반을 살펴야 할 것이라는 당위성을 제시한다.

특히 『십초시』가 그러하듯이 ‘협주’도 조선 초기까지 학시 텍스트로 이용되었다. ‘협주’는 羅末麗初는 물론이려니와 麗末鮮初의 문학에 영향을 끼쳤던 것이다. 따라서 ‘협주’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서 우리나라에서 주로 참고하였던 문헌과 이를 통해 문학작품 창작에 활용되었던 典故의 내용을 파악하는 일이 시급하다. 본고는 이에 협주의 내용을 정리하여 여기에 인용된 문헌과 자주 등장하는 전고를 밝히는 것을 일차적인 목적으로 삼고자 한다.

## II. 夾注 引用 文獻

협주는 ①작가 ②제목 ③시구에 달려 있다. 이 가운데 ①작가 협주는 史書, 詩選集 등을 인용하여 작가에 대한 개략적인 정보를 제공하며, ②제목 협주는 그 시의 저작배경이나 인명, 지명, 건물 등과 관련된 고사를 밝히고 있다. ③시구 협주는 시구의 이해에 도움이 될 만한 전거들을 부기하였는데, 모든 시구에 다 있는 것은 아니다. 그런데 협주는 인용 문헌을 정확하게 밝히고 있어서 당시에 통용되었던 지식의 유통 과정을 추정하게 한다. 따라서 협주에 인용된 서적과 작품을 분류하여 살펴 필요가 있다. 이에 300수의 시작품의 협주에 인용된 문헌과 문학작품을 일련번호를 매기면서 헤아려 보니 약 2,000건이 되었다. 인용문헌 및 문학작품의 성격은 다음과 같다.

### 1. 經典

한반도에 한자가 도래된 시기를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漢四郡 설치

이후 본격적으로 한자와 중국문헌이 전래되어 三國時代부터 상당한 한자 학습이 있었던 것으로 여겨진다. 특히 『漢書』, 『藝文志』에서 漢나라의 경학은 『易』·『書』·『詩』·『禮』·『春秋』의 五經 외에도 『論語』·『孝經』 중심이었다고 기록하였듯이, 우리나라에서도 이들 경전이 일찍부터 수용되어 三國時代에 이르면 대부분의 서적이 이미 수용되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百濟에 五經이 전해진 사실을 『舊唐書』의 기록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sup>9)</sup>, 이보다 앞서 고이왕 시절(234~285)에 박사 王仁이 『논어』·『천자문』 등을 일본에 전해주었다는 사실로서<sup>10)</sup> 3세기 이전에 이미 경전이 한반도에 들어와 있었음을 알 수 있다. 高句麗에서는 민간 교육기관인 扁堂에서 五經을 가르쳤던 것으로 보아,<sup>11)</sup> 소수림왕 2년(372)에 세운 태학에서 이러한 경학을 가르쳤던 것으로 추정된다. 신라에서는 신문왕 2년(682)에 국학을 세워, 『주역』·『모시』·『상서』·『예기』·『춘추좌씨전』·『논어』·『효경』·『문선』을 가르쳤다고 기록하고 있다.<sup>12)</sup>

『협주명현십초시』에는 위에 열거된 경서 외에도 『禮記』·『周禮』·『儀禮』·『孟子』·『爾雅』도 인용되고 있는데, 十三經이 모두 확인되는 것이다.<sup>13)</sup> 고려조에 이르러 光宗이 科擧制를 실시하여(958년) 유가의 정치이념을 현실정치에 반영하고자 하는 한편, 國學과 鄕校를 세워 교육사업

9) 『舊唐書』 卷199, 「列傳」 149, 「百濟條」, “其書籍有五經子史, 又表疏竝依中華之法”

10) 『古事記』, “又科賜百濟國, 若有賢人者貢上. 故受命以貢上人, 名和邇吉師, 卽論語十卷, 千字文一卷, 并十一卷, 付是人卽貢進(此和邇吉師者文首等祖)”

11) 『舊唐書』 卷199, 「列傳」 149, 「高句麗條」, “俗愛書籍, 至於衡門廝養之家, 各於街衢造大屋, 謂之扁堂. 子弟未婚之前, 晝夜於此, 讀書習射. 其書有五經及史記·漢書·范曄後漢書·三國志·孫盛晉春秋·玉篇·字統·字林, 又有文選, 尤愛重之.”

12) 『三國史記』 卷46, 「列傳」 6, 「強首條」, “強首 … 遂就師讀孝經·曲禮·爾雅·文選.”

13) 유교 경전은 시대마다 조금씩 분화·추가되는데, 漢代에 『春秋』가 『좌씨전』·『공양전』·『곡량전』으로, 『禮』가 『禮記』·『周禮』·『儀禮』로 분화하여 九經이 성립되고, 여기에 『논어』·『효경』이 덧붙여지기도 하였고, 다시 唐과 宋을 거쳐 『孟子』와 『爾雅』가 추가되어 十三經이 성립된다.

을 확장하였고, 이어 인종대에는 국학에서 『주역』·『모시』·『상서』·『예기』·『주례』·『춘추좌씨전』·『공양전』·『곡량전』·『논어』·『효경』을 가르쳤던 역사적 사실과<sup>14)</sup>, 협주 인용 문헌이 긴밀히 연결되었다고 할 수 있다.

[표 1] 『협주명현십초시』 인용 經典, 諸子書

經典名(十三經)	인용횟수	諸子書	인용횟수
『易經』	5	『莊子』	25
『書經』	14	『列子』	7
『詩經』	34	『老子』	3
『禮記』	15	『孫卿子』(荀子)	1
『周禮』	7	『孫子』	1
『儀禮』	1	『呂氏春秋』	2
『春秋左氏傳』	15	『韓非子』	1
『春秋公羊傳』	0	『淮南子』	11
『春秋穀梁傳』	1	『晏子春秋』	1
『論語』	14	『論衡』	3
『孝經』	1	『五經通義』	2
『爾雅』	6		
『孟子』	5		

다만 경전에 따라서 인용 빈도가 크게 차이가 난다. 인용한 횟수를 살펴보면, 시에 대한 주석이기 때문에 『시경』이 가장 많이 인용되고 있고, 『서경』·『예기』·『논어』가 15회 내외로 비슷한 출현 빈도를 보인다.<sup>15)</sup> 『좌전』 역시 15회 인용되었는데, 『곡량전』은 1회 인용에 불과하며, 『공양전』은 한 차례도 인용되지 않았다. 우리나라에 『좌전』이 활발하게 유통되었던 사정을 대변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三禮 가운데 가장 중요한 서적인 『예기』가 자주 인용되었고, 예의 실제적인 규범을 담은 『주례』

14) 『高麗史』 卷74, 「學校」.; 卷73, 「選舉」, 「科目」.

15) 중복 출현한 시어는 포함시키지 않았으며, 이후의 자료도 동일하다.

와 『의례』의 인용빈도는 떨어진다.

협주에는 『莊子』·『老子』·『列子』 등의 諸子書도 인용되고 있는데, 이 가운데 『장자』의 인용횟수가 가장 많고, 『淮南子』와 『列子』도 인용빈도가 높다. 문학적인 상상력을 불러일으킬 만한 내용이 많은 서적을 자주 인용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한편, 경전 해석에 가탁해서 신비적인 예언을 한 緯書 역시 협주에서 확인할 수 있다. 위서는 讖緯書로도 불릴 만큼 예점적인 요소를 포함하고 있는데, 後漢 이후 道家說을 변형시킨 신종교에 대항하기 위해서 經學을 신비화한 면이 있기 때문이다. 일반적으로 『易緯』·『書緯』·『詩緯』·『禮緯』·『樂緯』·『春秋緯』·『孝經緯』의 七緯를 말하며, 칠위에는 다시 개별적인 서적이 포함된다. 협주에도 많지는 않지만 몇몇 緯書를 확인할 수 있는데, 특히 『春秋緯』에 포함된 여러 서적이 인용되었으며, 『孝經援神契』도 2차례 인용되었다. 경전류에 비하면 미미한 인용횟수이지만 협주자가 유가 경전류에 국한하지 않고 다양한 전적을 섭렵하고 인용하였음을 알 수 있다.

또한 협주자가 승려인 만큼 협주에는 불경 및 관련 문헌이 다수 보인다. 특히 梁의 승려 祐律師가 불교 포교를 목적으로 편찬한 『弘明集』이 인용된 점과, 宋의 승려 道誠이 편찬한 『釋氏要覽』이 자주 인용되어 있는 점이 눈에 띈다. 또한 일실 문헌 『僧史略』도 2차례 인용되었다.

道敎 관련 문헌 역시 여럿 확인된다. 후한 이후 도교는 민중을 응집시키는 세력으로 자리잡으면서 교리·수행·의례·경전 등을 체계화시킬 필요가 생겨났는데, 梁 陶弘景(456~536)이 많아진 도교경전을 三洞四輔로 정비하게 된다. 三洞이란 洞眞·洞玄·洞神이며, 四輔란 太玄·太平·太清·正一로 삼동을 보충한다. 도교의 경전은 총서 『道藏』으로 정비되는데, 『上清經』·『靈寶經』·『三皇經』이 각각 통진·통현·통신의 기본 경전이 된다. 삼국시대에 이미 도교가 전래되었음을 여러 기록으로 알 수 있는데<sup>16)</sup>, 협주에는 『上清經』·『靈寶(度人)經』·『靈寶(赤書)經』이 보이며 이 외에 『眞人大丹訣』·『眞人參同契』도 각각 1회씩 인용되어 있다.

[표 2] 『협주명현십초시』 인용 緯書, 佛經 및 관련 문헌

緯書名	인용 횟수	佛經 및 관련 文獻名	인용 횟수	道敎 관련 문헌	인용 횟수
『春秋元命包』	3	『華嚴經』	2	『上清經』	1
『春秋感精符』	1	『(般若)心經』	2	『眞人大丹訣』	1
『春秋說題辭』	2	『起信論』	1	『眞人參同契』	2
『春秋淵孔圖』	1	『弘明集』	1	『靈寶度人經』	3
『春秋合誠圖』	1	『高僧傳』	4	『靈寶赤書經』	1
『孝經援神契』	2	『續高僧傳』	1		
		『僧史略』	2		
		『釋氏要覽』	6		

## 2. 史書

經典과 더불어 史書에 기록된 내용은 중국문명권에서 기본적으로 통용되는 지식이었다. 따라서 협주에는 史書가 자주 인용되며, 오히려 경전에 비하여 인용횟수가 압도적으로 많다. 『史記』·『漢書』·『晉書』·『南史』·『唐書』 등이 빈번하게 인용되고 있다. 인용된 사서의 내용을 확인하면, 시인과 그 주변인물에 대한 역사적 사실을 설명하기 위해서인 경우가 가장 많다. 특히 史書에 입진된 작가는 작가 협주에서 반드시 이를 기재하고 있는데, 신라 시인 朴仁範과 崔承祐에 대한 작가 협주에는 중국 사서가 아닌 『三國史記』, 『薛聰傳』이 인용되어 있는 점이 흥미롭다.

그런데 이러한 작가 협주 외에도 시작품의 내용을 설명하는 협주에서도 사서를 인용하여 기이한 행적을 보인 인물과 극적인 사건을 소개하는 내용 또한 많이 확인할 수 있다. 사서가 담고 있는 정보가 다양할 뿐만 아니라, 문학적으로 흥미롭거나 역사적·철학적 깨우침을 주는 일화

16) 신진식, 「삼국시대의 중국 唐·五代 道敎 전래에 관한 연구 : 留唐學人 金可記와 崔致遠을 중심으로」, 『道敎文化研究』 29, 한국도교문화학회, 2008, pp.14-18.

가 지나간 역사 속에 실재하기 때문일 것이다.

그러한 점에서 협주에는 국가공인의 史書 외에도 개인이 편찬한 역사서가 많이 인용되었다. 『戰國策』·『國語』·『吳越春秋』와 같은 선진시대의 역사서는 물론이고, 『漢晉春秋』·『晉陽秋』 등 위진시대에 편찬된 역사서도 확인된다. 이 가운데 『오월춘추』는 상상력이 풍부한 문학적인 표현들이 가득하기 때문에 志怪小說類로도 분류된다. 또한 인용문헌 가운데 보이는 『說苑』은 고대부터 한나라에 이르기까지 諸子들의 언행과 국가 흥망성쇠의 이치, 哲理와 격언 등을 기록하고 있어 역사 이면의 이야기를 엿볼 수 있게 하는 책이다. 즉 正史 이외의 역사서는 稗史의 요소를 포함하고 있다고 하겠는데, 협주는 이러한 사서를 인용하여 정사에서는 확인되지 않는 흥미진진하고 신비로운 일화를 전달하고 있다고 하겠다.

[표 3] 『협주명현십초시』 인용 史書 및 인용횟수

史書名	인용횟수	史書名	인용횟수	
『史記』	43	『戰國策』	2	
『漢書』	86	『國語』	1	
『後漢書』	44	『東觀漢記』	4	
『三國志』	魏志	13	『吳越春秋』	2
	吳志	2	『漢晉春秋』	1
	蜀志	2	『晉陽秋』	2
『晉書』	27	『魏略』	1	
『宋書』	6	『典略』	1	
『南齊書』	0	『宋略』	1	
『梁書』	3	『建康實錄』	3	
『陳書』	0	『吳錄』	4	
『魏書』	1	『國史補』	3	
『北齊書』	0	『三輔故事』	1	
『周書』	0	『三輔舊事』	2	

『南史』	20	『歷代統紀』	6
『北史』	2	『帝王世紀』	5
『隋書』	6	『說苑』	2
『舊唐書』	34	『三國史記』	2
『新唐書』	100		

### 3. 辭典, 名物度數書, 類書

한시를 이해하는데 있어서 한자 뜻의 미묘한 차이를 감지해 내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이런 이유로 협주에는 많지는 않지만 字書를 인용하여 글자를 해설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 최초의 자서라 할 수 있는 漢 許慎(30~124)의 『說文解字』는 물론이고, 揚雄(B.C. 53~18)이 한대 각 지역의 방언을 조사하여 저술하였다는 『揚子方言』이 자주 인용되었다. 또한 宋의 丁度 등은 왕명으로 착수하여 韻書 『集韻』을 완성할 무렵에 『집운』과 짝을 이루는 자서의 편찬을 왕에게 건의하여 거질의 『類編』이 완성되었는데, 협주에서 이들 자전류도 확인된다.

『手鏡』은 遼의 스님 行均(?~?)이 독경과 염불을 돕기 위해 한자에 주음과 석의를 붙여 997년에 펴낸 대장경의 자서 『龍龕手鏡』을 지칭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 책은 한자를 字形에 따라 분류하고 그 발음과 뜻을 찾아보는 字典으로, 『說文解字』 이후 매우 독창적인 자서로 분류되어 중국에서도 곧바로 간행되는 등 매우 애용되었다. 그런데 중국에서는 원본이 일찍 일실되고 南宋 때에 蒲宗孟이 『龍龕手鑑』이라는 제목으로 바꾸어 번각한 것이 현재 남아있다. 반면에 현전하는 고려본 『용감수경』은 南宋 간행본 『龍龕手鑑』과는 별개의 판본이어서, 遼版 원본 『용감수경』에 더 가까운 모습을 보일 것으로 추측된다.<sup>17)</sup>

이상의 문헌은 한자 字典 또는 韻書에 해당하지만, 글자를 해설하는 가운데 다양한 사물의 정체를 밝히고 있기도 하다. 그러한 점에서 다음

17) 정광, 「고려본 『龍龕手鏡』에 대하여」, 『국어국문학』 161, 국어국문학회, 2012.

의 어휘사전과 더불어 글자 또는 어휘에 국한되지 않고 다양한 정보를 제공한다고 하겠다. 어휘사전류로는 후한 劉熙의 『釋名』이 있는데, 실물을 알 수 없는 고대의 器物과 家具에 관해 귀중한 기록이 적지 않다. 그리고 魏의 張揖이 찬한 『博雅』는 『爾雅』와 같은 방식으로 경전의 어구를 해석한 책으로 역시 다양한 사물에 대한 정보를 담고 있다.晉 崔豹의 『古今注』는 輿服·都邑·音樂·鳥獸·魚蟲·草木·雜注·問答釋義로 내용을 나누어 名物을 설명하고 있다. 이러한 분류 방식은 類書와도 상통하는 바이다.

類書는 각종 서적에 실린 내용을 항목별로 분류 편찬하여 알아보기 쉽도록 엮은 책의 총칭으로서, 오늘날의 백과사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다. 협주에는 중국 최초의 유서인 『皇覽』은 물론이거니와 徐堅의 『初學記』, 白居易의 『白氏六帖』을 비롯하여 방대한 관찬 유서인 『藝文類聚』 등의 유서가 인용되고 있다.

【표 4】『협주명현십초시』 인용 辭典·類書類 관련 문헌

字書類	인용 횟수	語彙辭典類	인용 횟수	類書類	인용 횟수
『說文(解字)』	4	『釋名』	2	『皇覽』	1
『(揚子)方言』	4	『古今注』	7	『白氏六帖』	4
『集韻』	2	『博雅(廣雅)』	3	『初學記』	5
『類編』	8			『藝文類聚』	8
『(龍龕)手鏡』	5				

그런데 자서, 어휘사전, 유서 등은 名物을 해설하는 가운데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名物度數를 이해하는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다. 名物度數는 만물의 이름과 제도를 아울러 일컫는 용어로, 이를 줄여 名物로 지칭하기도 한다. 여기에는 자연과 인간사회의 온갖 사물은 물론이고 인간이 만들어낸 각종 제도 등이 포함되며, 이를 독립된 학문 영역으로 인정하여 名物學이라고도 한다. 동아시아에서는 일찍부터 ‘물’

에 대한 관심은 다양한 방식으로 표출되었고, 협주에서는 다양한 전적을 인용하여 각종 명칭과 제도를 설명하고 있다. 『십초시』가 대부분 중국한시를 수록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 사람이 접하기 어려운 소재로 한 시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에 대한 보충 설명이 있어야만 하기 때문이다. 시를 이해하기 위한 객관적 정보를 제공하고 있는 것이다.

이런 이유로 우리나라와 다른 중국의 제도 또는 풍속·문화를 설명하는 서적도 빈번하게 확인할 수 있다. 중국 고대로부터 당나라에 이르기까지의 政典 및 제도를 기록한 杜佑(735~812)의 『通典』은 24회나 인용되고 있다. 또한 楊侃의 『職林』은 宋 元祐 연간에 孫逢吉이 『職官分紀』를 완성하는 토대가 되었던 서적으로 그 내용은 관직에 대한 해설인 것으로 추정되는 일실서적인데, 이 역시 중국의 官制를 이해하기 위해서 자주 인용되고 있다. 이 외에도 漢代 應劭가 지었다는 『漢官儀』와 唐 李林甫 등이 왕명으로 편찬하였다는 『唐六典』 등이 관직 등에 관한 해설로서 각각 4차례 인용되고 있다.

이와 유사한 성격을 갖는 것으로 風俗에 대한 정보를 담고 있는 문헌이 있다. 중국의 문화에 익숙하지 않은 우리나라 사람에게 유용하였을 것으로 추정되는데, 典禮를 살피고 당시의 풍속을 바로 잡으려 後漢의 應劭가 지은 『風俗通(儀)』이 4차례 인용되었다. 이 외에 약초, 차, 술, 학에 관한 정보를 담고 있는 『本草』·『茶譜』·『酒譜』·『相鶴經』 등의 서적도 확인할 수 있다.

[표 5] 『협주명현십초시』 인용 物名度數 관련 문헌

制度 관련 문헌	인용횟수	風俗 관련 문헌	인용횟수	物名 관련 문헌	인용횟수
『職林』	9	『風俗通』	4	『本草』	3
『漢官儀』	4	『風土記』	1	『茶譜』	1
『漢官志』	1			『酒譜』	1
『通典』	24			『相鶴經』	5
『唐六典』	4				

## 4. 地理·博物志

시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각종 어휘와 고유명사만큼이나 地名이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경우가 있다. 그 작품의 배경이 되기 때문이다. 이런 이유로 협주에는 수많은 地理志가 인용되고 있는데, 가장 많이 언급되는 서적은 『十道志』이다. 『십도지』는 唐의 梁載言이 편찬한 지리지로서 북송시대까지 유전되다가 남송 이후 일실된 서적이다. 현재는 『십도지』의 내용을 『太平御覽』, 『太平寰宇記』 등의 類書에 輯佚本으로만 확인할 수 있는데, 흥미로운 것은 협주의 내용이 이들 유집본과 중복되지 않는다는 점이다.<sup>18)</sup> 즉 협주 인용 『십도지』의 내용이 일실된 원본의 모습을 짐작하는데 큰 도움이 된다 하겠다.

이외에 지리적 정보를 담고 있는 문헌으로 『九域圖』가 6번 인용되어 있고, 漢代 辛氏가 옛 秦 지역에 대해 기술한 『三秦記』, 晉 陸翽이 鄴都의 경관을 기록하였다는 『鄴中記』, 宋 陳舜俞가 廬山 일대를 유람하고 기록한 『廬山記』가 각각 2차례 인용되었다. 이 외에도 각 지역의 특성을 기술한 『益州志』·『南越志』·『荊州記』·『荊楚記』·『襄陽記』·『錢塘記』·『吳地記』·『隴右記』·『成都記』·『西域記』 등의 문헌이 각각 1번씩 인용되었다.

한편 지리서로서 가장 이른 시기의 문헌은 劉歆이 편찬한 『山海經』이다. 문제는 『산해경』이 지리적인 정보 외에 신화적인 내용을 많이 포함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따라서 이 문헌은 지리서로서보다는 신이한 내용을 설명할 때 인용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산해경』과 같은 계열의 책으로 분류할 수 있는 晉 張華(232~300)의 『博物志』에도 산천과 지리, 기이한 동식물, 각국의 민속과 풍습, 의학, 자연과학, 신선과 方術, 역사,

18) 김호, 「朝鮮刊本 『樊川文集夾註』의 夾註者 國籍에 관한 一考 - 고려시대 중국서적 장서환경의 관점에서 -」, 『中國語文學誌』 43, 중국어문학회, 2013, pp.50-51.

신화와 전설 등 인간 삶에 관계된 모든 것이 담겨 있다. 즉 『산해경』과 『박물지』는 지리적 공간에 따라 神人의 구분 없이 백과사전적인 내용을 담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일설 서적으로서 東方朔이 三神山에 대해 기술하였다는 『(三島)十洲記』 역시 이와 비슷한 성격을 지닌 것으로 여겨진다. 협주에는 이들 전적이 고루 인용되고 있다. 즉 구체적인 지리 정보 뿐만 아니라, 상상의 인물과 사건, 나아가 상상의 공간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제시하고 있다고 하겠다.

〔표 6〕 『협주명현십초시』 인용 地理·博物志

地理志	인용 횟수	地理志	인용 횟수	地理·博物志	인용 횟수
『十道志』	98	『益州志』	1	『山海經』	10
『九域圖』	6	『南越志』	1	『博物志』	7
『三秦記』	2	『荊州記』	1	『(三島)十洲記』	2
『廬山記』	2	『荊楚記』	1		
『鄴中記』	2	『襄陽記』	1		
『隴右記』	1	『錢塘記』	1		
『成都記』	1	『吳地記』	1		
『西域記』	1				

협주에 객관적인 정보를 기록한 지리지 외에, 환상·상상이 결합된 내용을 담고 있는 지리·박물지가 자주 인용되고 있는 것은, 협주의 대상이 문학 작품, 특히 한시 작품이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문학 작품의 창작이나 감상의 측면에서 공히 ‘상상력’은 매우 중요한 향유 기제이다. 흔히 ‘상상’은 ‘없는 것’을 생각해 내는 것으로 여기지만, ‘있는 것’을 바탕으로 이루어지기도 한다. 따라서 상상력의 근간이 될 수 있는 다양한 지식을 확보하는 것 또한 풍부한 문학 향유를 가능하게 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실재하는 사실과 실재한다고 믿는 환상·상상이 섞여서 만들어진 신이한 이야기와 설화가 한시의 중요 소재가 되고 또한

한시작품의 이해에 중요한 단서가 되기 때문에, 협주에서 지리·박물지의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것이다.

### 5. 志人·志怪 小說, 神仙傳流

신이한 이야기는 상상의 공간에서뿐만 아니라, 과거의 역사적 인물이나 사실을 바탕으로 형성되기도 한다. 따라서 앞서 살핀 史書 역시 역사적인 사실을 전달할 목적 외에 흥미로운 이야기의 원천으로서 협주에 인용된 측면이 있다고 하겠다. 나아가 실존인물이 등장하기는 하지만 그 내용은 매우 신비로운 『說苑』과 같은 설화집에서는 상상과 환상의 요소가 크게 나타나기도 한다. 이처럼 협주에는 오늘날의 시각에서는 志人·志怪小說로 분류되는 다수의 筆記著作들이 자주 인용되고 있다.

가장 이른 시기의 필기저작으로 『西京雜記』를 들 수 있다. 『서경잡기』는 漢나라 劉歆이 짓고 晉 葛洪이 모은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후한의 西京(長安)을 중심으로 한 제왕과 후궁, 궁궐에 대한 이야기와 王侯將相·文人·儒生들의 이야기, 세상의 풍속, 기이한 물건, 이상한 일 등 다양한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다. 특히 기이·기괴한 이야기는 후대 志人·志怪小說로 분류되기도 한다.

위진남북조시대에는 지인·지괴류의 내용을 담은 필기류가 다수 출현하게 된다. 그중에서도 협주에는 일설서적 『語林』을 확인할 수 있다. 裴啓(?~?)의 『어림』은 『서경잡기』와 비슷한 성격을 지닌 서적으로 한대부터 위진시대까지의 상층사회 인물의 언행과 軼事를 기록한 것이다. 劉義慶(403~444)의 『世說(新語)』, 任昉(460~508)의 『述異記』 역시 필기류 저작이라 할 수 있다. 陶潛의 『續搜神記』, 王嘉의 『拾遺記』, 吳均의 『續齊諧記』도 모두 같은 계열의 전적이다. 이들 저작은 역사적인 인물이나 사건을 설명하되 신이한 요소가 깃들여 있다.

이러한 부류의 서적은 이후 唐 蘇鶚의 『杜陽雜編』, 宋 范正敏의 『遜

齋閑覽』, 吳處厚의 『靑箱雜記』 등의 개인 저작을 거쳐 『太平廣記』로 집대성된다. 협주는 이들 서적을 고루 인용하고 있으며, 이외에도 唐 李浚의 『宋窗錄』, 宋 方回의 『紺珠集』 등 개인의 필기 저작도 다수 인용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협주에서 확인되는 『逸史』·『零陵總記』·『景龍文官記』·『盧氏雜記』·『須知錄』·『相庭事範』 등의 일실서적 역시 필기류 전적으로 추정된다.

한편 신이한 이야기의 정점은 역시 神仙傳類라 할 수 있다. 전국시대부터 나타나기 시작한 신선사상은 秦漢의 여러 왕의 求仙 행위를 통해 더욱 일반화되었고, 특히 적극적으로 구선행위를 한 漢 武帝의 일화는 후에 『漢武洞冥記』·『漢武故事』·『漢武內傳』과 같은 저작을 낳게 된다. 이러한 배경 하에 대량의 신선설화가 생성되고 劉向은 이를 정리하여 『列仙傳』으로 엮었다.

위진시대에 이르르면 신선설화의 계보를 잇는 저작이 잇따르게 되는데, 葛洪(284~364)의 『神仙傳』이 대표적인 예라 하겠다. 『신선전』은 내용이 풍부하고 줄거리가 복잡하며 묘사가 치밀하고 편폭이 길어져서 소설적인 색채가 강하다. 갈홍은 『신선전』 외에도 『抱朴子』를 짓기도 하였는데, 儒家의 내용을 담고 있는 外篇과 달리 內篇은 道教의 方生術을 다루고 있어 이 역시 신선류로 묶어서 볼 수 있다. 이후 『신선전』의 영향을 받아 다양한 작품이 나오게 된다. 협주에는 위에 언급한 神仙類 저작은 물론이고 五代 杜光庭의 『仙傳拾遺』와 작자미상의 『集仙錄』 및 『神仙本紀』가 인용되어 있다.

[표 7] 『협주명현십초시』 인용 小說類, 神仙類

小說類 문헌명	인용횟수	神仙類 문헌명	인용횟수
『西京雜記』	12	『穆天子傳』	1
『藝經』	1	『漢武故事』	5
『語林』	2	『漢武內傳』	4
『世說(新語)』	9	『漢武帝紀』	2

小說類 문헌명	인용횟수	神仙類 문헌명	인용횟수
『述異記』	5	『(漢武)洞冥記』	3
『拾遺記』	3	『列仙傳』	6
『續搜神記』	1	『抱朴子』	2
『續齊諧記』	1	『神仙傳』	4
『廣志』	3	『仙傳拾遺』	2
『杜陽編』	2	『集仙錄』	3
『(太平)廣記』	11	『神仙本紀』	3
『南部新書』	1		
『遜齋閑覽』	4		
『靑箱雜記』	2		

## 6. 『文選』 및 문학작품

학계에서는 신라 시인이 『文選』과 晚唐風의 영향을 지대하게 받았고, 이러한 경향이 이후 지속된다고 여겨 왔다. 이 중 만당풍의 영향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해명하고자 하는 노력이 있어 왔다. 즉 신라 시인 작품을 詩題와 典故 활용의 측면에서 만당의 작품과 비교하는 연구 등이 있어 왔던 것이다.<sup>19)</sup> 그런데 만당기에 입당·수학한 賓貢諸자들은 주로 杜荀鶴과 같은 사회파 시인들과 교류하였고<sup>20)</sup>, 그들의 한시들은 부분적인 시어에서는 기미한 풍이 보이나 이를 심도 있게 분석하면 염려, 낭만적인 내용이 아닌 개인의 울분, 사회에 대한 비판 등이 주로 나타난다.<sup>21)</sup> 즉 교류관계나 실제 창작 모든 면에서 李商隱, 溫庭筠류의 기미한 시풍과는 거리가 멀었던 것이다. 이는 기미한 시풍이 악곡과 관련을 맺는 경

19) 강혜선, 「박인범, 최광유, 최승우의 한시 연구」, 『한국한시작가연구』 1, 한국한시학회, 1995.

20) 김보경, 「『全唐詩』 소재 唐人贈新羅詩 연구」, 이화여대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1.

21) 이해순, 「신라말 빈공제자의 시에 대하여」, 『한국한문학회연구』 7집, 한국한문학회, 1984.

우가 대부분이었기 때문에 벌어진 어쩔 수 없는 현상이라고 할 수 있다.<sup>22)</sup>

반면에 일찍이 경전과 함께 수용된 『文選』<sup>23)</sup>의 영향은 구체적으로 밝혀진 바가 없다. 물론 신라 한시 자체에서 『文選』 수록 작가를 확인할 수 있다.<sup>24)</sup> 이러한 점은 신라 시인들의 시적 지향이 이들 『文選』 작가에게 있었음을 보여주는 것이지만, 구체적으로 문학 작품의 영향을 어떻게 받았는지를 보여주지는 못한다. 오히려 시구에 반영된 『文選』 수록 작품을 확인하는 작업이 이루어져야만 한다. 그런데 『협주명현십초시』의 시구 협주에서 인용하고 있는 문학작품을 분석하면 『文選』의 영향을 보다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

신라 시인의 작품에 국한하여 살펴보면, 협주가 인명·지명·관직명·건물 등 객관적인 정보가 아닌 문학작품을 인용한 경우는 모두 69건인데, 이 가운데 17건을 제외한 52건이 『문선』 수록 작품이었다. 뿐만 아니라 문선 수록 작품이 아닌 경우도 李白 5건, 杜甫 5건 이외에는 모두 당 이전의 작품이다. 협주가 『문선』을 인용하였다고 해당 시구 자체가 『문

22) 만당의 빈공제자가 과거에 급제하기 위한 수단으로 한시를 지었기 때문에 그들의 시에는 부분적인 만당의 기미한 시풍이 나타나기도 한다. 그러나 이를 신라 국내에서 『문선』을 학습하고 있었던 사실과 연결시켜 육조의 綺麗한 문풍과 비슷한 綺靡한 만당풍을 그대로 수용하였다고 한 것은 재고되어야만 한다. 이는 『문선』의 본래 성향이 부염한 시풍을 배제하는 것과 상치된다.

23) 『문선』은 고구려 민간교육기관이었던 扁堂에서 五經 등과 함께 교육되었고(『舊唐書』 卷199, 「列傳」 제149, 「高麗,百濟,新羅,倭國,日本」.) 신라 태종 무열왕 연간(654~661)에 활약한 强首는 『문선』에 능통하여 한문으로 된 외교문서를 능수능란하게 지었다고 한다.(『三國史記』 卷46, 「列傳」 제6, 「强首,崔致遠,薛聰」.) 통일신라기에 이르러서는 신문왕 2년(682)에 國學을 설치하여 儒家 經典과 더불어 『문선』이 중요 교과목으로 배정되었고(『三國史記』 卷38, 「雜志」 제7, 「職官 上」.) 원성왕 4년(788)에 실시된 讀書三品科에서도 경전과 『문선』에 능통한 자를 上品으로 등용하였다.(『三國史記』 卷10, 「新羅本紀」 제10, 「元聖王,昭聖王,哀莊王,憲德王興德王,僖康王,閔哀王,神文王」.)

24) 이에 대해서는 후술하겠다.

선』의 영향을 받아 제작된 것으로 볼 수는 없다. 그러나 협주자는 해당 시구를 『문선』을 통해서 이해하고자 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아울러 최치원을 비롯한 신라 시인 역시 『문선』을 의식하여 시작에 임하였으며, 그 영향이 『십초시』 편찬 시기는 물론이려니와 『협주명현십초시』의 간행 시기까지 지속되었다는 추정을 가능하게 한다.

시인 별로 살펴보면, 최치원 11/16건, 박인범 9/13건, 최승우 22/28건, 최광유 10/12건으로, 최승우의 시구에서 가장 많이 『문선』을 확인할 수 있다. 모든 신라 시인의 작품 협주에 10건 이상의 『문선』이 인용되고 있는 것이다. 신라시 협주의 『문선』 인용 횟수를 산술적으로 계산하면 『십초시』 전체에서 300여 번 이상 언급되어야 한다. 실제로 『문선』 수록 작품 및 주석을 인용한 협주는 290여 건이며, 중복 인용된 것을 감안하면 300여 건이 넘는 것으로 추정된다. 이러한 현상은 『십초시』 수록 작품, 그 중에서도 신라시 자체가 『문선』의 영향을 지대하게 받았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협주가 달리는 고려 말까지 그 영향력이 지속되고 있었음을 나타낸다고 하겠다.

따라서 협주에 언급되는 작가는 대부분 『문선』 수록 인물이다. 당 이후의 시인으로 李白(21), 杜甫(31), 王維(1), 韋應物(1), 白居易(3), 劉禹錫(1), 盧仝(1), 郭元振(1), 韓愈(10), 李商隱(2), 李嶠(1), 李賀(1), 陸羽(1), 杜牧(1), 蘇軾(2)이 있다. 이백, 두보, 한유를 자주 인용하였음을 알 수 있는데, 杜甫를 ‘詩史’로, 한유를 ‘韓公’으로 표기하고 있는 것이 흥미롭다. 협주자가 이들을 특별히 중요한 시인으로 여긴 것으로 보인다.

한편, 문학작품 외에 문학 비평서도 자주 확인된다. 이른 시기의 문학서로 漢 韓嬰이 『詩經』에 주석을 달아놓은 『韓詩外傳』과 위진시대 鍾嶸의 『詩品』이 눈에 띈다. 한편 작가 협주에서 晚唐의 王定保(870~940)가 찬한 『摭言』과 일실서적 『王公百家詩選』이 자주 인용된다. 이 외에 韓愈의 연보 『韓公年譜』는 시의 배경을 설명하는 가운데 인용되고 있다. 또한 송대에 나타나기 시작한 여러 시화집이 보이는 점도 특기할 만하다.

[표 8] 『협주명현십초시』 인용 문학서

문학서명	인용횟수
『文選』	290
『韓詩外傳』	3
『詩品』	2
『玉堂閑話』	2
『王公百家詩選』	6
『摭言』	13
『韓公年譜』	2
『唐宋詩話』	2
『西清詩話』	1
『漢皐詩話』	3

### Ⅲ. 頻出 詩語와 典故

시에 사용된 언어는 일반적인 언어와 차원을 달리 한다. 인간이 생각이나 관념을 말이나 글자로 기호화할 때에는 관련 대상을 정확하게 표현, 전달해야만 그 언어행위가 제대로 이루어지지만, 시에서는 이러한 기호화 과정이 부정되곤 하는 것이다. 그 결과 시어는 함축성과 애매성을 지니기도 하며, 비유와 상징을 통해 이면의 뜻을 드러내기도 한다.

漢詩 역시 한자를 표현매체로 하는 점이 다를 뿐 이러한 시어의 성격을 그대로 가지고 있다. 그런데 한시 작법상 함축성과 애매성, 비유와 상징을 나타내기 위해서 전통적으로 典故 있는 어휘를 끌어오게 된다. 따라서 한시의 詩語와 典故는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고 하겠다. 중요한 시어는 전고를 포함하기 마련인 것이다.

문학작품에서 전고를 활용하는 것을 전통적으로 ‘用事’라 일컬어 왔는데, 용사란 과거의 사건사실·지식·의견 등을 가져옴으로써 창작텍스트의 의미를 풍부하게 만드는 수사법이다.<sup>25)</sup> 이미 존재하던 문학적, 역

사적 전통을 시작품에 끌어들이므로써, 작가의 상황·감정·인식 등이 정당한 것임을 설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다. 근대 이전에는 시인이 작품 속에 전고를 다양하고도 교묘하게 구사하는 것이 미덕이었다. 뿐만 아니라 독자 역시 숨어있는 전고를 찾아내야만 한시 작품을 온전히 이해할 수 있었고, 그러한 지적인 활동 자체가 한시 향유의 방법이였다. 즉 작가뿐만 아니라 독자 역시 시어에 내포된 문학적, 역사적 전통에 대한 지식이 있어야 하는 것이다.

『십초시』에 수록된 시 작품에도 수많은 전고가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올바르게 이해하기 위해서 ‘협주’가 붙은 『협주명현십초시』가 완성되었다. 따라서 ‘협주’에 인용된 문헌과 그 내용은 『십초시』 수록 시작품의 전고를 파악하기 위한 수단이 된다. 특히 협주는 이미 한번 나온 전고는 “見上~” 또는 “~已出”이라고 표시하고 있어서, 시어의 출현 빈도 및 중요 전고를 가늠하게 해 준다. 이렇게 파악된 빈출 시어와 전거가 되는 기사는 우리 한시 수용의 첫 단계에서 어떠한 점이 중시되었는가를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빈출 시어와 중요 전고를 살피기 위해서 협주의 내용이 ‘~已出’ 등인 경우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에 중복된 내용임을 나타내는 협주 내용만을 모아보니 248건이었으며, 이는 전체 2,000여건 가운데 약 12% 정도에 해당한다. 또한 그 중에서도 三出 등 중복되게 인용되는 시어는 76개이며, 다시 四出이상으로 인용된 경우도 상당히 많다. 三出 이상의 경우만 표로 보이면 다음과 같다.

[표 9] 『협주명현십초시』 頻出 詩語

시어	협주 표기	출전	비고
鳳池	見上注水鏡.	『晉書』, 「荀勗傳」	三出
妙迹奇名	見題下注.	『화엄소』	三出

25) 구분현, 「用事の 개념과 범주에 대한 재검토」, 『국문학연구』 19, 국문학회, 2009.

시어	협주 표기	출전	비고
范蠡	范蠡見上<寄子修詩>‘變姓名’注.	『사기』	三出
蕭寺	‘蕭寺’‘庾樓’見上注.	『석씨요람』	三出
潘鬢初驚雪一莖	見上‘潘岳間居’注.	(문선)「한거부」	三出
三徑	‘三徑’見上‘往年江海別元卿’注.	『삼보사』	三出
鯉魚	‘鯉魚’見上卷‘魚正○’注.	『세설』	三出
書劍	‘書劍’已出上卷	『사기』	三出
朱門	‘朱門虹橋’已出上卷.		三出
朱門	‘青瑣’; ‘朱門’已出上卷.		四出
世上謾誇鸚鵡賦	已出上.	(문선)「앵무부」 등	三出
虹影	見上卷‘虹影照水斷橋梁’注.	『풍토기』	三出
書劍	書劍已出上卷	『사기』	四出
洞庭	‘洞庭’已出上卷.	『십도지』, 『장자』	三出
靑雲	‘靑雲’見上注.	『사기』, (문선)「해조」, (문선)「오군영」	三出
古碑秋草是王家	見上卷‘六朝文物’注.	『건강실록』	三出
六代	‘六代’見上卷‘六朝’注.	『건강실록』	四出
臺城	‘臺城’見上.	『남사』	三出
淸溪 玉樹	‘淸溪’; ‘玉樹’並見上 ‘玉樹花無主’注.	『남사』	三出
錦水	‘錦水’已出上卷.	『익주지』	三出
璧	見中卷‘泣玉’注.	『한비자』	三出
茂苑	‘茂苑’已出上卷.	『십도지』, (문선)「오도부」	三出
鳳臺人	見上卷‘蕭先生詩’注.	『열선전』	三出
秦娥捻竹淸難敵	事見上卷‘蕭先生詩’注.	『동헌잡록』	三出
荊玉	‘荊玉’已出中卷.	『한비자』	三出
靑門	‘靑門’已出上卷.	『십도지』, (문선)「영회」	三出
碧落	‘碧落’已出上卷.	『영보도인경』	三出
桂藥	‘桂藥’見中卷‘月中紅桂樹’注.	「안천론」	三出

시어	협주 표기	출전	비고
鳳城	‘鳳城’已出上卷.	『단제시』	四出
把玉	‘把玉’已出中卷.	『한비자』	四出
湘水	‘湘水’已出中卷.	『산해경』, 『영릉총기』	三出
鷗夷	見上卷‘煙水微茫變姓名’注.	『사기』	四出
一曲恩波	‘一曲恩波’已出上卷.	(문선)「待讌樂遊苑 送張徐州應詔詩」	三出
紫微	‘紫微’已出上卷.	(문선)「답장연시」	三出
馱次狂生	又見中卷‘賦學娛賓處士狂’注.	『한서』(예형)	三出
月桂	見中卷‘堪知折桂心還暢’注.	『신선본기』	三出
三洞	‘三洞’見上卷‘鶴辭仙闕下三清’注	『영보도인경』	三出
錦水	‘錦水’已出上卷.	『익주지』	四出
丹桂	‘丹桂’見中卷‘堪知折桂心還暢’注.	『신선본기』	四出
雜端	‘雜端’已出中卷	『직림』	三出
乘查	見中卷‘海查’注.	『박물지』?	三出
仙桂	‘仙桂’已出中卷.	『신선본기』	五出
錦帆	‘錦帆’已出中卷.	『수서』	三出
范蠡舟	‘范蠡舟’已出上卷.	『사기』	五出
綺季	‘綺季’見中卷‘四皓廟’注.	『후한서』, 『고사전』 등	三出
傲史	又見上卷‘別後旋成莊叟夢’注.	『장자』	三出
靑雲	‘靑雲’見上注.	『사기』, (문선)「해조」, (문선)「오군영」	四出
攀桂	‘攀桂’已出中卷.	『신선본기』	五出
鸚鵡	(已出上卷)	(문선)「앵무부」	四出
種柳開河	已出上卷	『수서』	四出
龍舟	見中卷注.	『수서』	五出
酒旗	‘酒旗’已出上卷	『주보』	三出
丹桂	見上‘何須名姓在殊科’注.	『척언』	六出
槐花	已出中卷.	『남부신서』	三出

시어	협주 표기	출전	비고
端公	‘端公’已出上卷	『직림』	四出
蓬根	‘蓬根’見上注.	(문선)「雜詩六首」	三出
五侯(婁護)	‘五侯’見上卷.	『전한서』	三出
庾樓宴擺三更月	已出上卷	『진서』	三出
鴛鴦	‘鴛鴦’已出上卷.	『양서』, 『직림』등	三出
王氣	‘王氣’已出中卷.	『역대통기』, 『후한서』	三出
六代	‘六代’已出上卷.	『건강실록』	四出
九重	‘九重’已出上卷.	『초사』	三出
心在瀟湘無別期	已出中卷	『영릉총기』, 『산해경』	四出
隋堤柳, 龍舟	‘隋堤柳’, ‘龍舟’已出中卷.	『수서』	六出
青瑣	‘青瑣’已出上卷.	『한관의』, 『후한서』	三出
南山祇對紫雲樓	見上卷‘曲江春’注.	『서경잡기』, 『송장록』	三出
錦水	‘錦水’已出上卷.	『익주지』	五出
衝天, 躍匣	‘衝天’, ‘躍匣’見上‘掘劍城前’注.	『진서』	三出
雙龍	‘雙龍’見‘掘劍城前’注.	『진서』	三出
杜鵑	‘杜鵑’已出中卷.	『박물지』, 『성도기』, 『이야소』	三出
湘川	‘湘川’見上注.	『영릉총기』, 『산해경』	五出
六代	‘六代’已出上卷.	『건강실록』	五出
蓬	‘蓬’見上‘二年蓬轉後’注.	(문선)「雜詩」	四出
滄浪歌	見上卷「漁父詩」注.	『초사』, 「어부」	三出
武陵溪	已出上卷	「도원기」	三出
說向人間如夢見, 再來唯恐被花迷	見上卷「武陵溪」注.	「도원기」	四出

## IV. 중요 典故의 내용과 의미

## 1. 역사인물·사건

역사적인 사건이나 인물은 시의 소재가 되기 알맞다. 극적인 사건이 흥미를 불러일으키기도 하며, 비극적인 결말을 맞은 인물은 강개한 마음을 토로하게 하기도 한다. 이런 이유로 역사를 소재로 한 詠史詩가 일찍부터 발달하였다. 뿐만 아니라 역사 전고는 景物詩나 述懷詩와 같은 영역에서도 자주 확인할 수 있는데, 역사적 인물이나 사실을 끌어와 경물의 특징이나 의미를 표현하기도 하고 자신의 내면을 대변하기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嬴주의 시어 가운데 역사를 소재로 한 예로 越王 句踐과 范蠡에 관계된 것이 많다.

24. 온정균, 「寄先生子修」, “星霜荏苒無言信, 烟水微茫變姓名.”  
 56. 두 목, 「題宛陵水閣」, “惆悵無因見范蠡, 參差烟樹五湖東.”  
 64. 이 원, 「吳越古事」, “吳越千年奈怨何, 兩宮清吹作樵歌. 姑蘇一敗雲無色, 范蠡長遊水自波.”  
 67. 이 원, 「閩中書懷寄孫秀才」, “閩國城邊經歲暮, 越王臺下度春寒.”  
 125. 이 섬, 「春分」, “強國未能忘范蠡, 壯心甘已伏終軍.”  
 221. 최승우, 「鏡湖」, “方朔絳囊遊渺渺, 鷗夷桂楫去忽忽.”  
 238. 최광유, 「鷺鷥」, “嚴光臺畔蘋花曉, 范蠡舟邊葦雪風.”

이들 작품은 모두 월왕 구천이 吳王 夫差에게 설원하는 이야기 자체보다는 그 과정에 현사를 모으기 위해 지은 越王臺<sup>26)</sup>와 范蠡의 책략과 이후 變姓名의 행적<sup>27)</sup>을 주목하고 있다. 즉 큰일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26) <협주> 『述異記』, “吳既滅越, 棲句踐於會稽之上, 地方千里. 句踐得范蠡之謀, 示民以農桑, 迎四方志士, 作臺於外而館賢士. 今會稽之上有越王臺云.”  
 27) <협주> 『史記』, “范蠡事越王句踐, 竟滅吳, 乃乘舟浮海出齊, 變姓名, 自號鷗夷子皮.”

인재를 끌어 모아야 한다는 점과, 일을 완성한 뒤에는 범려처럼 明哲保身해야 함을 강조한다고 하겠다. 특히 무모하게 국가적인 공적을 세우려 하다 스스로를 보전하지 못하는 일을 경계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범려만큼 자주 등장하는 전고는 隋煬帝와 관련된 것이다.

- 49. 장효표, 「上汴州韓司空」, “昨日路傍欵靜化, 汴河渾水變澄江.”
- 143. 최치원, 「汴河懷古」, “遊子停車試問津, 隋堤寂寞沒遺塵.”
- 211. 한 중, 「柳」, “彭澤有情還鬱鬱, 隋堤無主亦依依.”
- 258. 진도옥, 「隋堤柳」, “種柳開河爲勝遊, 亭前是使路人愁.”
- 282. 이산보, 「隋堤柳」, “曾傍龍舟拂翠華, 至今凝恨倚天涯.”

수양제는 黃河와 江淮를 연결하는 대규모 운하를 파고<sup>28)</sup>, 운하의 양안에 버드나무를 심어놓고 龍舟를 띄워 화려한 巡幸을 일삼다가 江都 [揚州]에 머물렀지만 결국에는 長安이 함락되고 친위대 신하인 宇文化及에게 살해되었다.<sup>29)</sup> 이러한 역사적인 사실을 소재로 한 시는 운하와 같은 대규모 토목사업을 벌이고 사치를 일삼다가 망국에 이른 수양제를 鑑戒로 삼는 주제를 담고 있다. 특히 한종의 「柳」에서는 陶淵明의 버드나무와 隋煬帝의 버드나무를 대비함으로써, 역사 평가의 준엄함을 보여준다고 하겠다.

## 2. 『文選』 수록작가

앞서 협주에는 『문선』 소재 작품을 빈번하게 확인할 수 있다고 하였

---

28) <협주> 『通典』, “隋煬帝開引黃河水以通江淮漕運, 兼引汴水, 卽浪蕩渠也.”  
 29) <협주> 『隋書』, “煬帝役天下萬姓鑿渭河入汴河, 通淮長安. 千里兩岸, 築堤栽柳. 帝乃造船二千隻, 皆作龍獸之形, 號曰龍舟, 繫以錦帆. 帝與蕭后及後宮妃諸王六宮乘舟歌舞. 東下渭水, 住江都未返, 而天下大亂. 十二年, 唐公起師於太原, 遂入長安. 帝聞之, 以手琢棹曰, 渠渠得之矣. 如此者三. 遂渡江, 幸丹陽. 時有宿衛諸將皆有懷土之志. 宇文化及因人之心, 遂作亂, 入犯宮闈. 宿衛皆走, 賊帝於江都.”

다. 마찬가지로 『십초시』에는 『문선』에 수록된 작가에 대한 일화를 소재로 한 시가 다수 있다. 먼저 漢의 禰衡(174~198)을 소재로 한 시어를 살펴보자.

109. 조 하, 「自解, “琴依賣卜先生樂, 賦學娛賓處士狂.”  
 223. 최승우, 「送曹進士松入羅浮, “厭次狂生須讓賦, 宣城太守敢言詩.”  
 225. 최승우, 「關中送陳策先輩赴邠州幕, “禰衡詞賦陸機文, 再捷名高已不群.”  
 254. 진도옥, 「鸚鵡, “幸自禰衡人未識, 賺他作賦被時輕.”

平原 사람 禰衡은 재주는 뛰어났으나 오만하고 독설이 심한 성품을 지녀서 ‘厭次狂生’이라 불렸고, 江夏太守 黃祖의 부하가 되었을 때 연회에서 「鸚鵡賦」를 즉석에서 지어 필명을 날리기도 하였다.<sup>30)</sup> 인용된 시에는 ‘狂’으로서 예형의 기행이나 「앵무부」 작가로서의 뛰어난 면모를 언급하고 있다.

23. 온정균, 「題裴晉公林池, “謝傅林塘暑氣微, 山丘零落閔音微. 東山終爲蒼生起, 南浦虛言白首歸.”  
 34. 장 적, 「送桂州李中丞, “東山强起就官榮, 欲進良籌佐太平.”  
 273. 가 도, 「崔君夏林潭, “盤貯井水蟬叫噪, 手擎葵扇帽欹斜.”

위의 작품들은 모두 謝安(320~385, 자는 安石)을 소재로 삼고 있다. 온정균과 가도의 작품은 사안이 大將軍 桓溫의 司馬가 되어 출정 나갈 때 中丞 高崧이 희롱하여 말하기를 “그대는 조정의 뜻을 여러 번 어기고

30) <협주> 『後漢書』, “禰衡, 字正平, 平原般人也. 少有才辯, 尚氣, 剛傲好矯, (般)唯善孔融. 融上疏薦之曰, 竊見平原處士彌衡, 年二十四云云. 曹操欲見之, 而衡素輕疾, 自稱狂疾不肯往, 而數有恣言. 操懷忿, 而以其才名不欲殺之. 衡許往, 融復見操, 說衡狂疾, 今求得自謝. 操喜, 勅門下有客便通, 待之極晏. 衡乃著布單衣疎巾, 手持三尺棨杖, 捶地大罵. 吏曰, 外有狂生坐於營門, 言語悖逆云云. 送與劉表, 表恥不能容, 以江夏太守黃祖性急, 故送衡與之祖, 亦善待焉. 祖長子射爲章陵太守, 尤善於衡. 射時大會賓客, 人有獻鸚鵡者, 射舉卮於衡曰, 願先生賦之以娛佳賓. 衡攬筆而作, 文無加點, 詞彩甚麗.”

東山에 누워있을 때, 못 사람이 말하기를 ‘安石이 나가지 않으면 창생을 어찌할 것인가?’라 하였는데, 창생이 이제 ‘그대를 어찌할 것인가?’라 한다”고 하였다는<sup>31)</sup> 고사를 끌어와 시에서 읊는 대상을 칭송하고 있다. 특히 가도의 시에서는 사안이 부채 파는 고향 사람을 위하여 부채를 들고 나가서 부채 값이 치솟게 되었다는 일화를 소재로 하고 있다.<sup>32)</sup>

- 2. 유우석, 「白舍人寄新詩, 有歎早白無兒, 因以贈之, “于公必有高門慶, 謝守何煩曉鏡悲.”
- 17. 백거이, 「餘杭形勝, “題詩舊壁傳名謝, 教妓新樓道姓蘇.”
- 30. 온정균, 「寄岳州李員外, “含嚙不語坐支頤, 天近樓高謝守悲.”
- 67. 이 원, 「閩中書懷寄孫秀才, “滄海西頭石萬灘, 謝公贈重遠相看.”
- 187. 방 간, 「贈李郢端公, “謝公吟處依稀在, 千古無人繼盛名.”
- 275. 가 도, 「早秋寄天竺靈隱二寺, “長憶往帆殊未遂, 謝公此地昔年遊.”

위의 시는 謝靈運(385~433)을 소재로 하고 있다. 백거이와 가도의 시는 사령운과 관련된 客兒亭[혹은 夢兒亭]을 살펴보고 그리워하는 내용이다. 협주에는 백거이 문집과 『詩品』 등을 인용하여 객아정의 유래를 설명하고 있다.<sup>33)</sup> 유우석의 시는 사령운이 永嘉태수로 지낸 일을<sup>34)</sup>, 이원

---

31) <협주> 『晉書』, “謝安, 字安石, 雖放情丘壑, 然每遊賞必以妓女從, 既累辟不就, 簡文帝時爲相, 曰, 安石既與人同樂, 必不得與人同憂, 召之必至. 時年已四十餘矣, 大將軍桓溫請爲司馬, 將發新亭, 朝士咸送, 中丞高崧戲之曰, 卿屢違朝旨, 高臥東山. 諸人相與言, 安石不出, 將如蒼生何? 蒼生今亦將如卿何? 以總統功進封太保. 薨, 贈太傅.”

32) <협주> 『晉書』, 「謝安傳」, “鄉人有罷中宿縣者還, 詣安, 問歸資. 答曰, 嶺南凋弊, 唯有蒲葵扇五萬. 安乃取其中者執之京師, 士庶競市, 價增數倍.”

33) <협주> 本集[백거이집-필자주], “一作‘夢兒亭古傳名謝, 教妓樓新道姓蘇’ 注云, 州西靈隱山, 上有夢謝亭, 卽是杜明師夢謝靈運之所, 因名客兒也. 鍾嶸『詩評』; 錢塘杜明師夢東南神人當來, 入於是父, 卽有謝靈運生於會稽. 旬日而謝玄至其宋[家], 以子孫難得, 送靈運寄杜理, 館養之. 元嘉十年, 年十五, 方還京師, 故名客兒.”

34) <협주> 『南史』: 謝靈運爲永嘉太守. 「永嘉郡射堂」詩云, 撫鏡華緇髮. 又, 謝朓爲宣城太守.

과 방간의 시에서는 會稽에서 노닌 사영운의 풍류를 읊고 있다.<sup>35)</sup> 그런데 ‘謝守’는 謝朓를 가리키기도 하는데, 이에 대해서 협주에서는 “謝朓爲宣城太守”를 덧붙이기도 한다.

201. 오인벽, 「宣州, “傳說林多三郡內, 謝公山滿四窓前.”

141. 최치원, 「登潤州慈和寺上房, “賴有謝家餘境在, 長教詩客爽精神.”

謝朓(464~499, 자 玄暉)는 앞서 살핀 최승우의 「送曹進士松入羅浮」에서도 나온 바 있는데, 宣城 태수를 지냈기 때문에 謝宣城이라고 하기도 한다. 협주에서는 오인벽의 시구 “謝公山滿四窓前”에 대해서 사조의 「宣城高齋閑坐詩」 “窗中列遠岫, 庭際付平林”로 설명하고, 이백의 시에 차용된 양상을 보여주고 있다.<sup>36)</sup> 최치원의 시구에서는 謝氏 일가의 문학적 성취를 모두 포괄하여 謝家라고 표현하고 있으며, 협주에서 『十道志』의 주를 인용하여 설명하는 한편, 사곤과 사조의 시로서 구체화하였다.<sup>37)</sup>

이렇듯 『십초시』와 협주에서 반복적으로 언급되는 문인을 살펴보면, 후한의 彌衡과 남조의 謝氏 가문의 인물이라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 특히 신라 시인의 작품에서 그러한 양상이 두드러진다.<sup>38)</sup> 또한 협주에서는

35) <협주> 『南史』: 謝靈運尋山陟嶺. 必造幽峻巖嶂數十重, 莫不備盡登躡. 嘗自始興南山, 伐木開徑, 直至臨海, 從者數百. 臨海太守王琇驚駭, 謂爲山賊, 未知靈雲, 乃安. 又要琇更進, 琇不肯, 靈雲贈琇詩, 邦君難地險, 旅客易山行. 在會稽亦多從衆, 驚動縣邑. 又曰, 靈雲父祖並葬始寧縣, 並有故宅及墅, 遂移籍會稽, 修營舊業, 傍山帶江, 盡幽居之美. 與隱士王弘之, 孔淳之等放蕩爲娛, 有終焉之志.

36) <협주> 謝玄暉 「宣城高齋閑坐詩」: 窗中列遠岫, 庭際付平林. 『通典』; 宣州屬縣有當塗. 李白 「五雲歌」注云; 謝朓宅在當塗青山下. 「歌」: 謝朓已沒青山字[空]. 又詩云, 宅近青山同謝朓, 門垂碧柳似陶潛.

37) <협주> 『十道志, 潤州』: ‘有烏衣巷’注: 宋時, 諸謝有烏衣遊. 謝琨詩曰, ‘在昔烏衣遊, 戚戚皆親侄.’ 謝朓詩, ‘江南佳麗地, 金陵帝王州.’

38) 彌衡은 2회(최승우의 「送曹進士松入羅浮」, 「關中送陳策先輩赴邠州幕」), 陸機(260~303)·陸雲은 3회(박인범의 「上馮員外」, 최승우의 「獻新除中書李舍人」, 「關中送陳策先輩赴邠州幕」), 謝惠連·謝靈運(385~433)은 1회(박인범의 「上殷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다. 이는 『십초시』 수록 작가는 물론이고, 협주자까지도 그 문학적 지향이 이들에게 있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 3. 立身出仕

전통시대의 한시는 단순히 문학적 향유물에 그치지 않았다. 識字와 能文은 곧 출사의 조건을 갖추는 것이었고, 한시를 창작한다는 것은 곧 능문 능력의 증명이 되기도 하였던 것이다. 즉 많은 작가가 출사의 도구로서 한시를 익히고 창작하기도 하였다. 이런 이유로 『십초시』에는 立身出仕의 뜻을 지닌 시어가 다수 있다.

- 79. 허 혼, 「送馬拾遺東歸」, “文章報主非無意, 書劍還家自有期.”
- 96. 장 호, 「送嶺南盧判官歸華陰山居」, “曾事劉琨鴈塞空, 十年書劍似飄蓬.”
- 119. 마 대, 「別劉秀才」, “三獻無功玉有瑕, 更携書劍客天涯.”
- 159. 박인범, 「贈田校書」, “日夕笙歌雖滿耳, 平生書劍不離身.”

‘書劍’은 ‘책과 검’이 상징하는바 학문과 무예를 의미하며, 협주에서는 『史記』, 「項羽本紀」를 인용하여 이를 설명하고 있다.<sup>39)</sup> 그런데 ‘서검’이 포함된 시들은 때를 만나지 못하여 뜻을 펼치지 못하는 인물들에게 주는 시이다. 즉 능력을 발휘할 기회를 잡지 못하였지만 학문과 무예 닦기를 그치지 말라는 의미로 ‘서검’을 계속 지닐 것을 당부하고 있는 것이다. 이는 시인의 뜻이나 그 시를 받는 인물, 나아가 『십초시』 편찬자와 협주자가 모두 출사의 기회를 얻고자 한다는 의미일 것이다.

員外), 謝朓(464~499)는 4회(최치원의 「登潤州慈和寺上房」, 「友人以毬杖見惠以寶刀爲答」, 최승우의 「送曹進士松入羅浮」, 최광유의 「御溝」) 출현한다.

39) <협주> 『史記』, “項籍少時, 學書, 不成, 去. 學劍, 又不成. 項梁怒之, 籍曰, 書, 足記姓名而已. 劍, 一人敵, 不足學. 學萬人敵.”

155. 박인범, 「早秋書情」, “堪知折桂心還暢, 直到逢秋夢不驚.”  
 165. 두순학, 「贈友罷赴舉辟命」, “不是桂枝終不得, 自緣年少好從戎.”  
 225. 최승우, 「關中送陳策先輩赴邠州幕」, “從此幕中聲價重, 紅蓮丹桂共芬芳.”  
 244. 나 업, 「冬日獨遊新安蘭若」, “未向芳枝休息意, 却樹清鏡有衰顏.”  
 249. 나 업, 「春日題贈友人洛下居」, “蟬鳴此境君須別, 年少青雲得桂攀.”

이러한 이유로 『십초시』에는 출사를 위해 반드시 거쳐야 하는 관문, 과거 급제를 의미하는 ‘折桂’를 포함하는 시가 많다. 신라시인의 경우, 입당 목적이 빈공과 급제인 점을 고려하면 당연한 결과라 할 수 있으며, 『십초시』 수록 작사의 대부분이 관직에 진출하였던 사정을 감안하면 당연한 결과이다. 협주에서는 ‘折桂’ 외에도 ‘桂枝’·‘丹桂’·‘芳枝’·‘桂攀’ 등으로 응용된 시어로도 나타난다.

경우에 따라서는 이들 시어가 협주에도 등장한다. 다음에 보이는 오인벽의 시에 대한 협주에 “羅隱이 丹桂에 한이 맺혔다.”<sup>40)</sup>라고 한 것이 바로 그 예이다. 또한 나온 시의 협주는 오인벽의 시를 참조할 것을 지시하고 있어서, 협주가 단순히 시어의 뜻을 해설하는데 그치지 않고, 시의 주제나 문맥을 고려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209. 오인벽, 「還羅隱書記詩集」, “自由聲詩符至道, 何須名姓在殊科.”  
 261. 나 은, 「寄徐濟進士」, “紅塵偶別迷前事, 丹桂相輕愧後圖.”

그런데 ‘折桂’는 과거급제를 의미하는 매우 평범한 전고라 할 수 있지만, 협주의 내용은 일반적인 ‘折桂’ 고사가 아니다. 협주에서는 『神仙本紀』를 인용하여, 과거에 낙방한 楚伯이 꿈속의 지시에 따라 달에 올라 계수나무 21가지 중 가장 큰 가지[甲枝]를 꺾어서 과거에 급제하였고, 사람들은 그를 이라 불렀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sup>41)</sup> 특히 『신선본기』를 인용

40) <협주> 『摭言』, “羅隱負冤於丹桂.”

41) <협주> 『神仙本紀』, “楚伯十上落第, 七月七日, 歸商洛山中, 惆愴曰, 月中一枝如可折兮, 胡愴乎落第? 其夜夢一人青冠青衣來曰, 汝有仙分, 必可折桂. 曰,

한 ‘甲枝郎’ 전고는 우리나라에서만 사용하는 시어로 정착되기도 하였다.<sup>42)</sup>

한편, 한시의 색채어는 자연 현상을 묘사하기도 하지만, 색채가 지닌 비유적 의미나 관용적 의미를 살려 여러 가지 함의를 품는 경우도 많다. 『십초시』 수록 작품에 보이는 색채어 중에도 立身出仕의 의미를 지닌 것이 다수 있다.

- 182. 방간, 「旅次洋州寓居郝氏林亭」, “靑雲未得行行去, 夢到江南身在茲.”
- 183. 방간, 「寄杭州于郎中」, “白屋靑雲至懸闊, 愚儒肝膽若爲傾.”
- 185. 방간, 「贈孫發百篇」, “莫嫌黃綬官資小, 必料靑雲道路平.”
- 241. 나업, 「旅館秋夕言懷」, “靑雲有路難知處, 白髮無情已滿頭.”
- 249. 나업, 「春日題贈友人洛下居」, “蟬鳴此境君須別, 年少靑雲得桂攀.”

위에 보이는 시어 ‘靑雲’은 단순히 푸른 구름을 의미하지 않는다. 높은 곳, 높은 관직이라는 의미도 있으며, 은거와 명예를 의미하기도 한다. 『십초시』에서 ‘靑雲’은 대체로 높은 관직 또는 권력을 의미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데, 협주에서 인용하고 있는 『사기』의 구문이나 「해조」, 「오군영」 시구에서도 이와 같은 뜻으로 쓰이고 있다.<sup>43)</sup> 그런데 이상 살핀 시어들로 인해 『십초시』 수록시인은 물론이고 편찬자나 협주자의 지향점이 모두 입신출사에 있었다고 단정 지을 수는 없다. 다음의 예에서 이를 확인할 수 있다.

- 26. 온정균, 「投中書李舍人」, “每過朱門愛庭樹, 一枝何日許相容.”
- 116. 마 대, 「懷舊居」, “朱門跡忝登龍客, 白屋心期失馬翁.”

如何? 對曰, 翌日晨曦初豔, 下溪行有靑冠人 急騎之. 翌日行溪邊, 果逢一人靑冠, 則騎之, 靑冠人升雲, 乃視之, 靑身五色龍也. 入月中, 下之, 上一黃金窟, 有桂樹二十一枝, 伯乃折甲枝, 復騎乘雲下來. 洛人謂之曰, 甲枝郎登第矣.”

42) 김은정, 앞의 논문, 2012b.  
 43) <협주> 『史記』, “須賈謂范雎曰, 不意君自致靑雲之上.”; 揚雄, 「解嘲」, “當塗者升靑雲, 失路者委渠滿.”; 顏延年, 「五君詠」, “仲容靑雲器”注; 李善云, 靑雲, 言高遠也.”

130. 위 섬, 「公子, “公子生鸞勢似鷗, 朱門當路壓虹橋.”  
 134. 피일휴, 「利仁鄭員外居, “殘春青瑣花千片, 盡日朱門鶴一聲.”

‘朱門’은 붉은 칠을 한 귀족 집의 문을 의미하며, 위에 보이는 시들에서도 공경의 집, 또는 화려한 집을 가리킨다. 특히 이 협주가 최초로 달린 온정균의 시구 “매번 朱門을 지날 때마다 뜰의 나무를 사랑하였으니, 어느 날에 한 가지를 가질 수 있으려나[每過朱門愛庭樹, 一枝何日許相容]”는 求官의 뜻을 담고 있다. 그런데 협주에서는 광경순의 「遊仙詩」 “朱門이 어찌 족히 영화로우리오[朱門何足榮]”를 인용하고 있다.<sup>44)</sup> 부귀 공명의 부질없음을 은연중에 드러내어서, 원시의 의미에 협주자가 논평을 보탠 것이라 할 수 있다.

이처럼 협주는 『십초시』 수록 작품의 내용을 충실히 해설하는 한편으로, 시의 주제와 별도로 시에 대한 협주자의 논평을 담고 있기도 하다. 특히 협주자가 직접적인 화자로 전면에 나서는 것이 아니라 여느 협주처럼 관련 문헌이나 문학작품을 인용하여 스스로의 주장을 정당화하고 있다. 시어의 전고를 해설하는 와중에 전고를 끌어와 자신의 주장을 입증하는 이러한 논평방법은 한시와 여러 전적에 해박하였던 협주자의 또 다른 면모를 보여준다고 하겠다.

## V. 결론

한문은 그 연원이 오래된 만큼 웬만한 글자나 단어가 모두 전고를 가진다고 할 수 있다. 특히 한시의 경우는, 글자 하나마다의 의미는 물론 이려니와 글자가 모인 단어, 그리고 역사적·문학적 맥락을 지니는典故까지를 모두 파악해야만 한다. 그래서 한시를 배우는 초학 단계에서는 글자마다 전고를 찾는데 힘을 빼기도 하고, 때로는 엉뚱한 전고를 찾

44) <협주> 郭景純詩, “朱門何足榮.”

아 시를 잘못 이해하는 경우가 있기도 하다. 이러한 점이 한시를 제대로 이해하고 감상하는데 있어 발생하는 가장 큰 애로 사항이라고 할 수 있다.

한시 이해의 어려움은 비단 오늘날에 국한된 일이 아니었을 것이다. 한시 양식이 한반도에서 ‘韓國漢詩’로 정착하는 과정에서도 현대인이 漢詩를 대할 때 느끼는 생경감, 이질감이 존재하였을 것이다. 한시 양식을 온전히 이해하고 창작하기 위해서는 앞서 언급하였던 전고를 비유와 상징으로 형상화하여야만 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사정을 감안하면 한국한시사가 800년대 이후 入唐 유학생이 증가하면서부터 전개된 것은 당연한 결과라 하겠다.

이후 입당 유학생이 접하고 익힌 한시 수준을 학습하는 단계가 있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십초시』가 바로 그러한 목적으로 편찬되고, 협주는 선발된 시편에 대한 독자의 이해를 위해 이루어진 것이라 하겠다. 따라서 『십초시』와 『협주명현십초시』는 한시 수용의 초기 단계에서 주목하였던 작품과 전고를 담고 있다고 하겠으며, 이에 대한 연구는 오늘날의 한시 학습에도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본고는 이러한 문제의식 하에 『협주명현십초시』의 협주에 인용된 문헌과 전고를 살펴보는 것을 일차적인 목표로 삼았다. 우선 협주에 인용된 문헌을 思想書, 史書, 字書·辭典·類書, 地理博物志, 小說類, 文學書 등으로 나누어 고찰하였다. 이들 문헌은 고려의 지식 유통 상황 및 동아시아 지식의 보편적 양상을 고찰하는 중요한 단서가 된다. 전통적으로 韓中日은 서적을 통해 지식과 사상을 교류해 왔는데, 10세기 무렵의 동아시아에서도 새로운 지식과 사상을 담은 다양한 문헌이 광범위하게 유통되었던 사정을 파악할 수 있는 것이다. 특히 국가가 공인한 지식체계에 포함되는 經典類와 史書類는 한시 작품을 이해하는 주석인 협주에도 빈번하게 인용되고 있다. 특히 문학서와 문학작품의 경우는 『文選』 및 여기에 수록된 작품이 압도적으로 많이 인용되고 있었다. 한국한시의 초기단계에서 『문선』이 차지하는 비중이 협주가 완성되었을 고려 말까지 지속되고 있던 사정을 보여준다고 하겠다.

한편, 협주를 붙인 시어에 대한 분석도 함께 병행하였는데, 협주에 보이는 ‘已出’, ‘見上’ 등의 표현을 확인하여 빈출시어와 전고를 도출하였다. 그 결과 역사적인 인물로는 范蠡가 자주 언급되었고, 문인들의 행적으로는 禰衡과 謝氏 일가의 구성원의 문학적 성취를 기리는 내용이 많이 등장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입신출사의 내용을 담고 있는 시어로 ‘書劍’, ‘折桂’가 자주 확인된다. 그런데 색채어 중에 ‘朱門’에 대한 협주는 입신출사의 공허함을 내용으로 하는 시를 인용하고 있다. 이는 협주가 시구의 내용에 대한 해설의 내용을 담기만 한 것이 아니라, 협주자의 논평까지도 포함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본고는 방대한 내용의 협주를 인용문헌과 빈출시어 및 전고라는 측면에서 고찰하였다. 『십초시』와 『협주명현십초시』의 문학사적 의의를 논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사실을 바탕으로 수록 시편의 주제나 형상화 방식을 정밀히 살펴야만 할 것이다. 편찬자의 편찬의도 등을 구명해내기 위한 이러한 작업은 향후의 과제로 남겨 두도록 하겠다.

<參考 文獻>

- 『영인본 夾注名賢十抄詩』, 한국학중앙연구원, 2009.
- 『高麗史』, 국사편찬위원회 한국사데이터베이스.
- 『三國史記』, 국사편찬위원회 한국사데이터베이스.
- 『舊唐書』, 문연각사고전서 전자판.
- 강석중, 「『십초시』의 중국시 선시 양상 일고」, 『韓國漢詩研究』 11, 한국한시학회, 2003.
- 강혜선, 「박인범, 최광유, 최승우의 한시 연구」, 『한국한시작가연구』 1, 한국한시학회, 1995.
- 구본현, 「用事의 개념과 범주에 대한 재검토」, 『국문학연구』 19, 국문학회, 2009.
- 김보경, 「『全唐詩』 소재 唐人贈新羅詩 연구」, 이화여대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1.
- 김수연, 「<양축>설화의 국내유입과 <양산백전>에 나타난 소설화 양상」, 『古小說研究』 29, 한국고소설학회, 2010.;
- 김영문, 「새롭고 아름다운 ‘文’의 향연 - 『文選』 해제」, 『문선역주』, 소명, 2010.
- 김우석, 「梁祝 이야기에 대한 연구 1 - 전설과 역사의 사이에서」, 『中國文學』 52, 한국중국어문학회, 2007.
- 김은정, 「『十抄詩』를 통해 본 羅末麗初 한시 수용 양상」, 『한국한시연구』 20, 한국한시학회, 2012.
- , 「『夾注名賢十抄詩』 夾注 연구 - 新羅한시를 중심으로」, 『韓國漢文學研究』 50, 한국한문학회, 2012.
- 김 호, 「朝鮮刊本 『樊川文集夾註』의 夾註者 國籍에 관한 一考 - 고려시대 중국서적 장서환경의 관점에서 -」, 『中國語文學誌』 43, 중국어문학회, 2013.
- 신진식, 「삼국시대의 중국 唐·五代 道教 전래에 관한 연구 : 留唐學人 金可記와 崔致遠을 중심으로」, 『道教文化研究』 29, 한국도교문화학회, 2008.
- 楊爲剛, 「『十道志』佚文輯考及相關問題研究」, 『역사와 세계』 40, 효원사학회, 2011.
- 유병례, 「『십초시』에 수록된 유우석, 백거이 시 선시 양상」, 『중국어문논총』

- 50집, 중국어문연구회, 2011.
- 이혜순, 「신라말 빈공제자의 시에 대하여」, 『한국한문학연구』 7집, 한국한문학연구회, 1984.
- 임도현, 「『(夾注)名賢十抄詩』의 刊行目的과 流傳樣相」, 『중국어문학』 57, 영남중국어문학회, 2011.
- 정 광, 「고려본 『龍龕手鏡』에 대하여」, 『국어국문학』 161, 국어국문학회, 2012.
- 호승희, 「『十抄詩』一考: 『全唐詩』 미수록 작품을 중심으로」, 『서지학보』 15, 한국서지학회, 1995.
- , 「『십초시』의 자료적 이해와 편찬체제」, 『韓國漢文學研究』 19, 한국한문학회, 1996.
- 金程宇, 「韓國本『十抄詩』中的唐人佚詩輯考」, 『瀋陽師範學院學報』 2002년 제5기 제26권, 총제113기.
- 芳村弘道 著·沈慶昊 譯, 「朝鮮本『夾注名賢十抄詩』의 基礎的 考察」, 『한자한문연구』 1, 고려대학교 한자한문연구소, 2005.
- , 「동아시아 문학사와 『十抄詩』, 『夾注名賢十抄詩』」, 『한국어문학국제학술포럼』, 한어문학 국제학술포럼 제1차 국제학술대회, 2007.
- 查屏球, 「新報『全唐詩』102首」, 『文史』 2003년 1집, 총제62집.
- , 「說明」, 『夾注名賢十抄詩』, 上海古籍出版社, 2004.
- 牛林傑, 「韓國文獻中的『全唐詩』逸詩考」, 文史哲, 1998.

### Abstract

*An approach to annotations of 『Hyubjoo-MyunghyunShibChoSi(夾注名賢十抄詩)』  
focusing on References and Authentic Precedents / Kim Eun Jeong\**

『ShibChosi(十抄詩)』 contains 300 poems in seven word style of Chinese verse by 30 mid and late Dang(唐) dynasty poets including 4 Shilla(新羅) people. Otherwise 『Hyubjoo-MyunghyunShibChoSi(夾注名賢十抄詩)』 which was edited by Jasan in later Goryeo(高麗) dynasty contained an explanatory notes and annotations on 『ShibChoSi』. This tow books represented publications distribution in East Asia of 10th century, so attract attention in Korea, China, and Japan. Especially these shows the historic starting point of the Chinese poems in Korea by accepting the genre of Chinese poems.

This paper aims to analysis references and authentic precedents of annotations in 『Hyubjoo-MyunghyunShibChoSi』. Cited references of annotations can be classified according to kind of contents. There are volumes of philosophy, history books, dictionaries, geography books, and literature book including 『Moonsun(文選)』 in annotations.

By researching these references, we know frequency occurrence poetic dictions and authentic precedents in 『ShibChoSi』. Especially, we know that Jasan(子山) who annotated not only annotated Chinese poems, but also commented meaning of poem.

**【Key words】** Hyubjoo-MyunghyunShibChoSi(夾注名賢十抄詩), annotation, Cited References, frequency occurrence poetic diction, authentic precedents

투고일 : 11월 6일, 심사일 : 11월 22일, 게재확정일 : 12월 4일

\* Assistant professor, Hongik University(Sejong) / eunsiro@hanmail.net